



시여 정민주 | 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 / 시인
 (mypoemmylife@hanmail.net)

하천과 우리 설화 7

한강(漢江)

한강수~라 깊고~얕은~물~에~수상선 타고~서~에루화~뱃놀이가잔~다
 아하야하 에헤야 에헤~이오 에헤~이아 얼쌘마 둥게 띄어라 내 사~랑~아
 술렁 술~렁 돌고~도는~잔~에~미운정 고운~정~에루화~뱃사랑이란~다

아하야하 에헤야 에헤~이오 에헤~이아 얼쌘마 둥게 띄어라 내 사~랑~아
 흘러흘~러 흘러~기는~물~에~미운정 고운~정~에루화~뱃놀이 아니~나
 아하야하 에헤야 에헤~이오 에헤~이아 얼쌘마 둥게 디어라 내 사~랑~아

“한강수 푸른 물아/너는 어찌 늙지 않아/만고불변 한결같
 이 흐르는데……에헤야 무정할손/사람만이 늙는구나.”¹⁾에
 서는 강물이 상징하는 영원성이 늙기 쉬운 인간의 유한성과
 대조되어 무상한 삶의 정서가 애절하게 노래되고 있다.

여기서 일곱 번째 하천과 우리설화에서는 한강에 얽힌 슬프
 고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소개하겠다.

한강설화²⁾

한강 514.4km의 발원지는 하루 2000여t의 물이 석회암반을
 뚫고 흘러나오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의 검용소. 검용소를
 출발한 물은 한강의 최상류인 골지천으로 흘러들어 삼척시
 하장면을 지난 뒤 정선 아리랑의 고장인 아우라지 나무에 닿
 는다. “옛날 여랑리에 사는 처녀와 아우라지 건너편 유천리에
 사는 총각이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 동백을 따라 간다는
 구실로 유천리에 있는 싸리골에서 만나곤 했지. 그러던 어느

가을 큰 홍수가 나서 아우라지에서 나룻배가 다닐 수 없게 되
 자 처녀는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애
 절한 심정을 정선 아리랑에 실어 불렀다는구나.”

고양도시설화³⁾

옛 조선의 물을 다스리던 신 하백(河伯)은 백두의 허리를 적
 서 태백까지 굴러 내려온 빗방울들의 정기를 모아 반도(半島)
 의 한가운데를 굽이쳐 감도는 큰 강을 하나 낳았는데, 하늘을
 가로지르는 미리내용의 개울, 은하수를 닮았다 하여 은한(銀
 漢)이라 하였다.

은한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둘 있었는데, 은한백(銀漢百)과
 은한려(銀漢麗)였다. 작은 용(龍)의 형상인 두 여인은 인간이

1) 네이버 지식백과, 한강[漢江]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한강 생활문화), 2006, 한국콘텐츠진흥원
 3) 고양도시설화 01 - 춘향보다 1000년 앞선 '꽃 같은 사랑' 한강의 딸, 한구술 | 고양시
 청, 2009

되어 좋은 배필을 만나 고산(高山) 아래서 도란도란 살아보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하백은 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지 풍파를 부르겠구나.” 하며 한숨을 쉬었다. 손녀들이 놀라서 이유를 묻자, 둘다 꿈을 접고 용의 길을 가면 무사하겠지만 꿈을 따른다면 하나는 뜻을 이룰 수 있으나 하나는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두 여인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곤 차라리 꿈을 포기하고 강을 지키자며 손을 마주잡는다. 그러나 어느 날 안성(安星)이라는 이름의 별 하나가 강에 비친다. 한백과 한려는 그 늠름한 용모를 보고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백에게 달려가 어떻게 하면 그와 인연을 지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졸랐다. 한사코 고개를 흔들던 하백이 마침내 말을 해주었다.

“너희 아버지인 한아버지(漢銀漢)가 잠들어 있을 때 입속에 물고 있는 구슬을 빼서 별을 향해 던지거라. 그러면 안성이 내려와 데려가리라. 한아버지는 구슬만 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쪽엔 물방울을 물고 있단다. 물방울을 꺼낸 쪽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리라.”

자매는 그날 밤 별이 뜰 때를 기다려 한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강 하구로 다가갔다. 입 속에 물려있는 두 개의 방울. 한백이 말했다.

“왼쪽 방울은 안성님의 별이 크게 보이고 오른쪽 방울에는 작게 보이는구나. 너는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니?”

아우 한려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내가 큰 것을 택해야겠죠? 언니는 작은 걸 고르세요.”

그러자 갑자기 한백이 의심이 생겨 왼쪽을 택했다.

“아냐, 내가 큰 것을 해야겠어.”

자매가 양쪽에서 방울을 빼냈을 때 갑자기 한아버지가 깨어나며 크게 노해 몸을 뒤틀더니 물방울을 빼낸 한백을 덥석 물어 삼켜버렸다. 구슬을 빼낸 한려는 강기슭을 내달려 고산으로 도망쳤다. 별안간 천둥이 치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를 달래던 날

...(중략)...

용구재 이무기제를 재현하는 모습

성난 이무기는 해마다 한강을 뒤흔들어 지나가는 배를 뒤집고 사람들을 수장(水葬)시켰다. 사람들은 이무기를 달래기 위해 성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형상을 만들어 큰 수레에 싣고 한강으로 모시고 간 뒤 배에 옮겨 실어 물결이 사나운 여울목 부근에서 이무기 방생제(放生祭)를 지냈다.

별이는 구슬에게 이무기제에 대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무기님이 들어가신 웅덩이 부근에 제당을 짓고 산닭과 제용짚으로 만든 사람 형상의 제물을 만들어 바칩니다. 그날 한밤중을 택해 마을 백성들 가운데 성씨가 다른 다섯 명이 모여 이무기 형상을 만듭니다. 근데 이무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글쎄, 용처럼 생긴 건 아닐까?”

“그때 이무기로 화하는 모습을 보았던 청년이 전해준 대로 만드는 것인데, 음... 머리는 마두(馬頭), 곧 말머리처럼 생겼고, 귀에는 사슴뿔이 돋아있으며 몸은 뱀처럼 비늘이 있고 길쭉하다고 했어요. 대나무와 짚을 엮어 만든 거적으로 몸을 싸서 만든다 합니다.”

...(중략)...

그날 식파루에 모여 앉은 사람들 사이에, 허름한 차림이지만 얼굴에 귀한 기운이 서린 청년 하나가 있었다. 묵묵히 앉아 음식과 술을 먹고 있던 그는 저편에서 그네를 타는 한 여인을 보며 가슴이 몹시 설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안(安)이라는 고구려 청년이었다. 장수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문자왕(文咨王), 21대 491-519 재위, 장수왕의 손자의 아들로 흥안(興安)태자라 불렸다. 23세의 이 청년은 광개토왕-장수왕-문자왕으로 이어진 고구려 황금시대를 계승하고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부왕의 숙원인 한강 일대 영토를 점령할 계획을 품고 있었다. 위례성 하남에 수도를 두었던 한성(漢城) 백제가 장수왕의 침공을 받고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일은 고구려의 야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한강을 차지하는 일은 통일 과업 절반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였다. 태자는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백제국으로 잠입하여 정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494년, 고구려는



부여 지역을 완전히 복속시켰다. 여세를 몰아 신라를 쳐서 거의 성을 탈환하는 상황이었으나 백제군이 원병으로 출동하여 이를 저지했다. 이듬해 백제의 성을 공격하였을 때에는 신라군이 다시 도우미로 출병해 좌절되고 말았다. 대(大)고구려 건설의 깃발을 내걸었던 왕조는 백제, 신라 양국의 연합전선이 가장 번거로운 상황이었다. 문자왕은 총명하고 용기가 뛰어난 흥안태자를 적국에 보내서 나제동맹(羅濟同盟)의 허점을 찾아내 연합전선을 깨뜨리고자 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백제에서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던 태자가 고을 행사에서 만난 한 백제 여인에게 애뜻한 연심을 품게 된 것이다.

고구려 은하수와 백제 구슬의 국경을 넘는 사랑

식파루의 모임이 끝난 뒤 모두들 흠어져 돌아가는 저녁, 흥안태자와 심복 무창은 구슬의 뒤를 밟고 있었다. 강변길에 물 소리가 들렸다.

“아씨, 누가 우릴 따라오는 거 같아요.”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같구나.”

“바람소리 속에 인기척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아유, 별이가 오늘 경계심이 많구나. 강으로 간 이무기가 헤엄치는 소리겠지.”

“아씨, 저 골목에 달빛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워낙 달의 기운이 좋아서 구름을 밀어내고 있구나.”

“아씨도 참.”

그때 심복 무창이 나뭇잎 사이에서 튀어나와 별이의 입을 막은 채 덩석 껴안고 길옆으로 사라진다. 구슬이 소스라치게 놀라는 순간, 다시 다른 나뭇잎에서 흥안태자가 나와 그녀의 팔뚝을 잡는다.

“누, 누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소리 지를 거예요.”

달빛에 태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남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쁜 사람이 아니요. 놀라게 하려는 것도 아니요. 식파루에서 그대를 처음 보고는 정신을 잃어버린 가엾은 남자요. 조금… 이야기를 더 해도 되겠소?”

“우리 별인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별이부터 구해주세요요.”

“아, 그 아가씨 나의 부하인 무창이 데리고 간 것입니다. 내가 남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른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흥안태자는 구슬의 손을 이끌어 강변으로 나아간다.

“나는… 고구려에서 온 왕자요. 큰일을 이루기 위해 적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한성(漢城)은 고구려를 연 동명성왕의 두 아들 비류와 온조가 일군 땅입니다. 40년 전 백제 개로왕이 죽임을 당하고 한성을 웅진으로 물린 일은 천하의 대

의가 움직인 것입니다.”

“40년 전 얘기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때 바둑을 두며 접근해 개로왕을 눈멀게 한 고구려 사람 도립이 지금의 당신 같은 밀정이었지요. 한성을 친 고구려군 앞에서 첩자 도림은 왕의 얼굴에 침을 세 번 뱉었다는데, 당신은 내 얼굴에 침을 뱉으실 건가요?”

“당치도 않은 말이요. 도립은 오직 나라를 위해 계락을 썼을 뿐이요. 내가 그 같은 계락을 쓴다면 왕이나 성주에게 접근해야지, 강변에 있는 보통 여인인 남자에게 접근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신원을 밝혔소.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될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에 돌아안 어찌할 수 없는 사무침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요. 남자, 손을 한번 쥐보시오.”

구슬의 손을 잡은 태자가 말한다.

“여기 보시오. 당신의 운명의 흐름을. 이 손금과 나의 손금을 함께 보시오. 두 손금을 합치니 한수(漢水)의 흐름처럼 두 번 자맥질하며 휘도는 모양새가 아니요? 왕국에서 나는 오래 전에 한수의 물결을 이을 배필을 만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지요. 당신과 내가 한수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이미 운명이 예정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 집안은 한(漢)씨 가문으로, 대대로 한수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늘 은한(銀漢), 곧 은하수가 내려와 저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어린 날 내 이름이 뭐였는지 아시오? 태(泰)미르였소이다. 어머니가 큰 강물 위를 과도타 듯 오르는 은빛 용을 꿈꾸시고 나를 낳았기 때문이요. 미르는 바로 용이란 뜻입니다. 은하수를 머리내라고 하는 것은 미르의 내(川)를 뜻하는 것입니다. 부친이 예언한 은한과 오늘의 이 운명이 관련이 있는 것만 같소.”

“태자님의 지금 이름은 무엇인지요?”

“나는 안(安)이라는 이름을 가졌소. 천하를 평안하게 하라는 왕국의 염원이 담긴 글자입니다. 남자는 이름이 무엇이었요?”

“저는 구슬이라고 하옵니다.”

“아, 용이 한수에서 구슬을 물었으니 이제 하늘을 날아오

를 기회인가 보요.”

“태자님을 꿈예선가 이미 뵈은 듯하옵니다.”

꿈같은 시간이 흐른 뒤 저쪽 어둠 속에서 별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씨, 괜찮사옵니까? 이걸 어째? 제가 아씨를 돌봐드리지도 못하고..”

“나는 괜찮다.”

“고구려인 무창에게서 이야기를 대강 들었습니다. 대대로 백제인으로 살아온 우리가 어찌 저들의 행각을 가납할 수 있겠습니까?”

“별이야,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말거라.”

“하오면..?”

“저들은 비류, 은조로 갈라진 땅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큰 뜻을 지닌 영웅들이다. 나는 그와 백년을 함께할 뜻을 맺었으니 죽어도 그를 따를 수밖에 없다.”

“아씨..!”

“오늘 일은 없었던 것처럼 하여라.”

“태자님이 다시 아씨를 모시러 온다고 하였던가요?”

“봉화를 올리면 용이 구슬을 물것이라 말하였느니라.”

“제상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여하튼, 내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 그걸 믿고 잠자코 있어라.”

“어휴, 알겠어요. 아씨, 근데 두려워요. 앞일이 어찌될지..”

..(중략)..

“아씨, 이번에 부임한 비후(比後)태수가 개백현 일대에서 절색으로 소문이 난 구슬아씨를 탐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합니다. 비후는 웅진 대왕실의 종척으로 그 세력이 대단하다고 하옵니다. 젊고 지혜로운데다 용기까지 뛰어나 특별히 요지의 태수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려면 아씨와 잘 어울리지 않으실지..”

“닥쳐라! 어디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수령으로 부임한 자가 먼저 고을의 여인부터 찾아 나섰다면 지혜롭다고 할 수 없거니와 나는 이미 인연에 배를 묶는 밧줄보다 단단히 매인 몸이니 어찌 허튼 일에 한눈이라도 팔겠느냐? 지난 번 화수회 때

내가 불렀던 노래를 기억하느냐?”

“아, 그거 뭐더라, 화심가(花心歌), 꽃마음의 노래라고 했던 그 노래 말씀이예요?”

“그래, 그거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 들어보려무나.”

구슬이 일어나 길옆에 있는 꽃을 한 송이 꺾어 머리에 꽂고
는 원무를 추며 노래를 부른다.

“아씨도 참 딱하십니다.”

“네가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느냐?”

5년 뒤 고구려 안학궁, 사랑을 찾는 안장왕과 을밀

고구려의 평양성은 장안(長安)이라고도 부른다. ‘안(安)’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말이며, 또한 519년에 문자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흥안태자, 안장왕(安藏王)의 이름이기도 하다.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은 대성산에 거대한 규모의 안학궁(安鶴宮)을 짓고 왕실의 권위와 안녕의 뜻을 담았다. 523년 여름 어느 저녁 안학궁에서는 안장왕과 그의 친구이자 장수인 을밀(乙密)이 앉아있었다. 왕이 말했다.

“내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산 땅을 얻지 못하였다. 몇 차례의 공격에서 번번이 장수와 군사들을 잃었다. 한강에는 내가 구슬처럼 아끼는 여인이 있기도 하다. 오래 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채 이렇게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노라. 더구나 풍문을 들으니 그곳의 태수가 몇 년째 거둬다녀 여인을 핍박하여 아내로 삼고자 한다니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노릇이로다. 이번에 고구려의 명운을 걸고, 개백현 일대를 강습하여 가엾은 여인을 구하여 왕비로 삼고 통일의 대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을밀, 그대는 타격대로 강을 건너 관아를 습격해 여인을 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후발대를 몰아 한강 일대를 몰아붙이겠다.”

을밀은 고구려 최고의 재상인 을파소(乙巴素)의 후손으로, 안장왕이 등극한 후 조의선인(苴衣仙人), 신라의 화랑과 같은 고구려의 검은옷 무사단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그는 3천여 명의 청년 부대를 이끌며 전통무예와 호흡법 수련으로 무사들을 단련시키고 있었다. 특히 을밀은 고구려의 영토 회복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다물흥방(多勿興邦), 땅을 되찾아 나

라를 흥하게 한다는 뜻의 노래를 만들어 평양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게 만들었다. 안장왕은 을밀의 이 같은 의기를 높이 샀기에 구슬낭자를 구출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왕의 제안을 들은 을밀은 잠깐 침묵을 지킨 뒤 가만히 말하였다.

“사랑이란 정말 국경도 없고, 신분도 없으며 세월 또한 없는가 보옵니다. 왕께서 수년 전에 언약한 여인과의 뜻을 지키기 위해 명운을 거는 모습을 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왕의 의기와 사랑을 위해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게도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깊은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었더냐?”

“왕은 백제의 민가에서 사랑을 찾았지만 저는 고구려의 왕실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였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엄연한지라 감히 꺼내지도 못한 채 혼자서만 몇 년째 앓고 있습니다.”

“오호, 을밀이 마음에 둔 여인이 누구란 말이나?”

“저 안학궁의 구중심처에 계시는 왕의 어린 누이 안학공주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다. 왕가의 혼인 규율이 엄격한 만큼 공주의 결혼은 쉽게 결정내릴 수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구슬을 구출하여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영웅인 을밀의 청원을 물리칠 수도 없었다. 마침내 왕은 이번 거사를 성공적으로 끝낸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말했다. 을밀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조군 3백 명을 이끌고 평양성을 떠났다.

한성 비후태수 관아, 구슬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울 것 없으나...

“참으로 너의 마음은 알 수가 없도다. 무엇이 너를 그토록 붙잡고 있던 말이나? 내가 무엇이 부족하던 말이나! 네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은가. 또한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진실하기 이를 데 없도다. 젊은 영혼을 바쳐 너에게 호소했건만 그토록 오랫동안 마음을 꺾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나?”

“나으리는 내가 정혼자(定婚者)를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국의 첩자와 혼약한 것이 틀림없다고 짐작하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미 고문으로 죽였고, 내 형제를 불구로 만들어

신음케 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빨리 죽여주시지요.”

“저런 모진 것을 보았나! 수년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 랫을 두고 정혼자라고 말한 사람이 잘못 아니던가. 도대체 누 구와 혼약을 했던 말인가! 귀신이던가, 아니면 한강의 이무기 이던가. 한번 부러본 고집이라면 이쯤에서 꺾고 나와 다시 시 작해 백년해로하는 것이 어떠한가?”

...(중략)...

모래 7월 7일이 나의 생일이니 그날 밤 네가 나를 받아들 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棺)이 너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생일에 나는 모든 것을 잊은 듯 다시 태어나리라.”

“모래까지 갈 것도 없소이다. 그냥 여기서 목을 쳐주소서. 더 러운 능멸을 그만 당하고, 이제 죽어 별이 되어 낭군을 내려 다보고 싶소이다.”

“여봐라, 저 모진 것을 다시 가두어라!”

사흘 뒤 비후태수의 별장,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붉은 마음

“여봐라, 구슬에게 생일 술을 한 잔 먹여라.”

관현이 구슬을 붙잡고 술을 먹이려 하는데, 여인은 입을 다 문 채 고개를 돌리며 술을 쏟아버린다.

“이보게, 마음을 풀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원한이 있겠는 가. 오직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고 억울하여 강 제로라도 그대 마음을 사교자 한 일일세.”

“여자의 마음을 강제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것이 폐단입 니다. 세상의 미물로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모두 하늘의 법 을 따릅니다. 천도(天道)에 어긋난 일이 사람에게 옳은 일일 수 없을 것입니다.”

...(중략)...

흥인태자를 기다린 한구슬이 봉화를 올린 고봉산의 현재 모습

흑두건 부대와 고봉산 봉화

...(중략)...

백마를 탄 왕과 강변에서의 해후

한편 한강 너머에서 구슬의 기별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 던 안장왕은 고봉산에서 솟아오르는 불길을 보자 눈물이 왁 각 치밀었다.

“살아있었구려. 고맙소. 살아 있어주어 정말 고마우이. 저 불꽃이 내 가슴 속처럼 타오르는구나. 봉화가 천 마디 말보다 도 더욱 내 간장을 후비는 듯하오. 내 당장 그대를 구하러 달 려가리라. 여봐라, 진격을 개시하라!”

백마를 탄 왕은 한강을 넘었고, 그날 대대적인 격전을 치렀 다. ‘다물(多勿), 영토 회복의 노래’ 소리가 한강 일대에 울려 퍼졌다. 마침내 왕은 고봉산에서 달려 내려온 을밀 일행과 한 강변 덕양에서 조우했다. 말에서 내린 안장왕과 한구슬, 두 사람은 부둥켜안고 떨어질 줄 몰랐다. 구슬이 흐느끼는 소리 가 십 리 밖에서도 들릴 만큼 사위가 조용했다. 왕이 말했다.

“그대를 처음 보았던 곳에서 다시 그대를 만나는구려. 처음 보았던 그대도 아름다웠지만 다시 보는 그대는 그때와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답소.”

그때 구슬은 말없이 단심가를 불렀다.

“이 몸이 죽고죽어 일백 번 고쳐죽어 뺨골이 먼지 되어 녀 이라도 있고 없고...”

안장왕은 오열하며 그녀를 꺾어 안았다. 이때부터 이 일대 의 마을을 가리켜 왕봉(王逢), 왕을 만나다현이라고 불렀다. 구슬은 고구려로 들어가 왕비로 즉위하였다. 이날 밤 구슬은 달빛을 보면서 비명에 돌아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올리며 구슬프게 운다. 그때 부른 노래가 수심가(水心歌), 물마음의 노래이다.

“한강의 딸이었네

구슬을 문 용이었네

강물이 역류하라

허튼 바람 침노한들 서러운 물가에서

한 마음 돌아보네”

그때 곁에서 을밀과 손을 잡고 있던 안학공주가 하늘을 가 리키며 소리쳤다.

“어머, 하늘의 은하수가 노랫가락에 따라 출렁거리고 있어 요. 별들이 한강과 고봉산 쪽으로 가득 흘러내리고 있어요.” 